

통신요금 지원하고 경품도 평평…

증권사 “모바일 고객을 잡아라”

무선단말기 거래 늘면서 개미 투자자 겨냥 유치전

“모바일 고객을 잡아라.”

증권사들이 모바일 주식투자를 하면서 개미 투자자를 잡기 위해 ‘마케팅 전쟁’ 모드로 전환했다. 모바일거래 수수료 면제, 스마트폰과 통신요금 지원, 다양한 경품 행사 등을 내걸고 사활을 건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거래소와 지역 증권사에 따르면 올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거래대금 비중이 개인투자자 전체 주식거래대금의 3.57%를 차지, 휴가철 시작전인 1월 4일~6월 30일의 3.05%보다 0.5%포인트가량이나 늘어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가 수직상승하는 추세다.

업계의 마케팅전도 달아오르고 있

다. 현대증권은 신규고객과 가입 후 거래실적이 없던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모바일 주식거래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한금융 투자는 이달 20일 안에 신규가입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3개월간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삼성증권은 오는 31일까지, 동양종금증권은 연말 안에 신규 가입하거나 직전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고 거래를 재개하는 고객에게 3개월간 모바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아예 스마트폰 할부금 지원에 나서는 업체도 있다. 현대증권은 이달 말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갤럭시S를 신청하고 월 100만원 이상 모바일 주식

매매를 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전액 지원한다. 월 4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통신비 4만5000원도 대신 내준다.

삼성증권도 같은 방식으로 이달 31일까지 선착순 접수한 3000명에 한해 월 300만원 이상 모바일 주식거래를 하면 매월 할부금을 지원한다.

증권사간 고객유치 경쟁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도 풍성해진다. 신한투자는 오는 20일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굿아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의 장단점을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에 흥미로운 고객 중 상위 10명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고, 이들에게 신한금융투자 온라인 브랜드인 ‘굿아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자격을 준다.

기움증권은 8월 말까지 모바일 거래를 이용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5명) 혹은 문화 상품권(3만원권, 50명)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나대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하나(Smart hana)’에 로그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에게 ‘아이패드’를, 매일 5명에게는 4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매일 30명에게는 파리바게뜨 케이크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양종금증권도 휴대전화 CMA 서비스 신규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가입일로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월정액 요금 무료혜택을 주고, 신규가입 후 첫 로그인한 고객들 중 매일 선착순 5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연합뉴스

여름 돼지고기

“더 잘 팔렸네”

“여름철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고 있다. 여름철에 돼지고기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월 1일~8월 11일) 돼지고기 매출 신장률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은 2.3% 증가한데 그쳤지만 2009년에는 12.3%, 올해는 43.4%나 늘었다.

지난해 생산이력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마트측은 설명했다.

축산전문기업(주) 선진도 최근 10년간 여름철(7~9월) 돼지고기 매출을 살펴본 결과 2001년과 2005년 여름철에는 그해 월평균 매출액 보다 5% 더 많이 팔렸고, 2006년과 2009년에도 월평균에 비해 2% 매출이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光銀 수완금융센터지점 개점

송기진 행장 등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12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수완금융센터지점 개점식 행사를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韓銀 기준금리 연 2.25% 동결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불거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물가 불안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9월이나 10월

에 기준금리를 다시 소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 부담스러운데다 미국의 경기둔화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인 3%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에도 쇼핑카트 등장

광주시 4곳 160대 보급

광주지역 주요 전통시장에서도 쇼핑카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12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등 주요 4개 전통시장에 쇼핑카트 160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용주차장과 시장 통로 간격 등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우선 4개 시장을 선정, 카트를 보급했으며 앞으로 활용 성과를 보아가며 카트 보급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쇼핑카트 보급은 광주시가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 이뤄졌으며, 전통시장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소형으로 주문 제작됐다.



12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이용해 장을 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연간 100억원씩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행기자 redplane@

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부동부동액의 경우 제조업이 21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서비스업(18억9000만원), 다음으로 건설업(11억5000만원) 순이었다.

신규 부동부동액은 6개로 전달(11개)에 비해 5개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법인이 5개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전달과 같았다.

신설 법인수는 296개로 전달(279개) 보다 17개 증가했고 부동 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59.2배로 지난 2007년 4월(68.8배)에 대비 대치를 기록했다.

광주의 부동부동액이 준 것은 부동업체가 준데다 부동부동액이 적은 때문

광주 어음부도액 크게 하락

부도기업 줄어든 탓…전남은 소폭 증가

7월 광주지역 어음부도 금액이 전달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7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0.15%로 전달(0.45%)에 0.20% 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전달 0.74%에서 0.38%로 0.36% 포인트 떨어졌고, 전남은 0.15%로 전달과 같았다.

광주의 부동부동액은 52억4000만원

으로 전달에 비해 58억6000만원이 줄었고, 전남은 22억5000만원으로 3억 원이 증가했다.

광주의 부동부동액이 준 것은 부동업체가 준데다 부동부동액이 적은 때문

으로 풀이된다.

은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불거졌던 5월 이후로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4.16포인트(0.88%) 내리면서 470.98에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환율은 상승(원화값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7원 오른 1,186.20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10일(8.6원)과 11일(13.5원)에 이어 사흘간 25.8원 치솟았다.

〈연합뉴스〉

세계 경기 둔화 우려…증시 36P↓·환율 급등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기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국내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아시아권 종시가 이를째 급락했다.

이날 예상대로 한은의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음선만기일을 맞아 장막판 2500억원가량 프로그램 순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의 낙폭이 더 커졌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36.44포인트(2.07%) 내린 1,721.56에 거래를 마쳤다. 가까스로 1,730선을 지쳤지만 장막판 프로그램 매물에 1,720선으로 주저앉았다.

지난달 8일 1,698.64 이후로 최저치다. 글로벌 경기 리스크에 연이틀 급락하면서 어닝시즌(실적발표 기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하락폭은 5월 25일의 44.10포인트 이후로 가장 커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4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5000억원 이상 순매도한 것